

상상력으로 메우는 역사의 '빈틈'

거시적 역사에서 미시적 역사로

기존의 역사서들은 대부분 정치사 중심으로 기술됐다. 최근 이같은 관행에 반기를 든 새로운 경향의 역사서가 활발히 출간돼 눈길을 끈다. 거시적 역사에서 미시적 역사로 무게중심을 옮긴 새로운 역사서들은 과거에 평가절하됐던 사료들을 재평가한다. 문서보관소에서 잠자고 있던 '쓸데 없는 것들'을 질료로 삼아 당대 민중들의 생활상을 생생하게 복원하고 있는 것이다.



마르탱 게르가 돌아왔다. 8년 전 어느 날, 홀연히 아내와 자식들을 버린 채 가출했던 사내. 8년만에 돌아온 마르탱 게르는 아내와 함께 평온한 생활을 한다. 그러나 몇년 뒤, 그의 아내는 사기꾼에게 속았다면서 그를 재판에 회부한다. 남자가 자신이 진짜임을 납득시키는데 성공할 무렵, 진짜 마르탱 게르가 나타나고, 그는 '아르노 뒤틸'이라는 사기꾼으로 밝혀진다.

상상력으로 복원한 문화사

나탈리 제먼 데이비스가 쓴 《마르탱 게르의 귀향》(양희영 옮김, 지식의 풍경)은 우리에게 영화 〈마틴 기어의 귀향〉으로 잘 알려져 있는 사건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저자는 '잊을 수 없는 판결'로 이름붙은 드라마틱한 이 사건을 토대로 그때의 실제상황을 재구성한다. 그러나 재구성을 위해 저자가 사용한 '질료'들은 당시의 재판 기록, 그 지역의 경제활동을 묘사한 여러가지 문건들, 토지 소유 및 상속과 관련된 관습 등을 기록한 문헌과 같은 '하찮은 것들'이다. 여기에 저자의 역사적 상상력이 조미료로 첨가된다.

그러나 이 책을 통해 저자가 밝히고자 한 것은 "누가 진짜 마르탱이냐"는 사건의 전말이 아니다. 저자는 주요인물들의 주변을 살살이 탐색하면서, 그들의 행동태도와 성격, 사고, 심리적 동기 등을 추적한다. 그 과정에서 당시 프랑스인의 생활상과 여성상 등이 생생하게 되살아난다.

기존의 역사서들은 주로 영웅이나 정치가, 철

학자 같은 위인들을 위주로 한 저작들이었거나, 혹은 사회사 밑바닥의 대중들을 하나의 계급으로 인식한 관점에서 서술한 것이었다. 반면 앞서 언급한 책은 당대를 살아가던 무명의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시 말하면 그동안 소외됐던 민중들 개개인의 실명을 직접 거론함으로써 당시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들의 사고방식은 어땠는지를 복원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 복원의 과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상상력이다. 하지만 이 상상력은 '허구적 상상력'이 아닌, 최선의 실증과 추측을 토대로 한 '실제적 상상력'이다.

로버트 단턴의 《고양이 대학살》(조한욱 옮김, 문학과지성사)은 6편의 논문을 통해 18세기 프랑스의 사회상을 탐구하고 있는 책이다. 하지만 저자가 '채용'한 사료(史料)는 귀족이나 유명한 인물 위주의 역사적 서술이 아니다. 그동안 역사학계가 평가절하한, 경찰 감독관이 보관한 서류철, 백과사전의 서문, 농민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시민의 서적 주문서 등 '문서 보관소'에서 잠자고 있던 '쓸데 없는 것들'이다.

린 헌트의 《프랑스 혁명의 가족 로맨스》(조한욱 옮김, 새물결)는 소설, 회화, 판화, 신문 기사 등과 포르노그라피, 팸플릿, 멜로드라마 등 갖가지 '비정통적인' 자료들에 나타난 가족관계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 프랑스 혁명을 새롭게 조명하고 있다. 저자는 프랑스 혁명을 논하면서 주로 18세기 프랑스 소설들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

다. 일례로 그는 소설에 나타난 아버지 중심의 가족질서의 붕괴를 군주체제의 몰락과 연관지어 해석하고 있다.

역사의 전망을 확대한 새로운 흐름

이밖에도 18세기 당시 경찰의 보고서와 파리의 포주였던 구르당 부인의 편지를 통해 당시의 성 풍속과 프랑스 사회를 재구성한 《파리의 치마 밑》(주명철 지음, 소나무), 7세기에서 12세기까지 유럽 경제 성장사와 결혼을 통해 중세의 정치 사회현상을 살핀 조르주 뒤비외의 《전사와 농민》(최생렬 옮김, 동문선)과 《중세의 결혼》(최애리 옮김, 동문선) 등이 있다.

또한 '메노키오'란 별명이 붙은 한 방앗간 주인의 세계관을 추적해 당시 민중문화의 생성과 근거를 탐구한 카를로 진즈부르그의 《치즈와 구더기》와, 갈릴레오 재판사건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돋보이는 페에뜨로 레돈디의 《이단자 갈릴레오》도 곧 번역 출판될 예정이다.

이같은 일련의 미시문화사적 저작들에 대해 광차섭 교수(부산대 사학과)는 "무미건조한 역사 저작들"에 대한 반성과 "기존의 역사서술 방식의 오만함"에 대한 반발로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지적하면서 "역사의 조망"을 한층 더 넓히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 최갑수 기자